

□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필요성

- 다문화사회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, 다수문화와 소수문화라는 이분법적 분리와 배제를 극복하지 못한 반면 상호문화사회는 주류와 비주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모든 문화의 동등한 상호 교류·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지향함
- 유럽평의회, 유럽연합은 2008년 다문화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호문화정책의 핵심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‘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’ 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경기도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됨(2020.02)
- 전국 최대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인 경기도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2015년 55.32점에서 2018년 55.00점으로 감소하였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분리 및 잠재적 갈등 현상이 등장하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 역할 필요성이 대두됨

□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경기도 역할

- 경기도내 선주민과 이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경기도 정책 및 사업 기획·운영시 정책 대상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홍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됨
- 공간적 분리와 배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공간을 활용한 상호문화교류의 장 조성,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 일상에서의 상호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필요
- 경기도민의 상호문화성과 상호문화역량 제고, 상호문화 관점을 통한 정책 기획·운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
- 또한 경기도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지정 희망 시·군의 상호문화도시 지정 지원과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간 상호문화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·운영 지원이 필요함
- 경기도민의 상호문화 관심 제고 및 교류·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간 협업을 통한 공모전,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기도민의 정책 및 사업 수립 참여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